

▶ 동경도 예방
의학협회 기
생중 대책회
의



韓 日 中

기생충 관리 대책회의

參加記

徐 基 弘

기협 서울시 지부 사무국장

83년도 한,일,중기생충관리 대책회의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 간에 걸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대표로서는 필자를 위시하여 경남지부 사무국장 河成美씨, 보사부 朴永圭씨, 문교부 洪起需씨등 4명이고 자유중국에서는 高雄市三民区 위생시험소장 林勝義씨의 3명 모두 8명이였다.

우리가 방문하고 협의한 기관은,

1. 日本豫防醫學事業中央會.
2. 笠川保健協力財團.
3. 國立豫防衛生研究所.
4. 國立身體障害者리하비디테손센타.
5. 總合田子保健센타.
6. 神奈川縣豫防醫學協會.
7. 東京都豫防醫學協會및新宿五立牛込保健所.
8. 東京都養育院.
9. 大阪市豫防醫學協會.
10. 兵庫縣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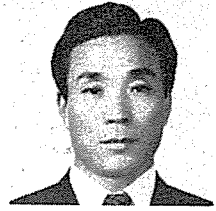


사진 : 筆者

◀ 東京都 牛込
보건소에서
기념 촬영

防醫學協會. 11. 神戸市立中央 市民病院 등 많은 기관들이였으며, 그야말로 “하드스케줄”에 의한 연수코스였다.

첫날 방문한 곳은 笠川財團과 日本 豫防醫學事業中央會였다. 오전에는 中央會에서 國井涉씨와 양국 대표의 인사가 있었고 安藤課長의 안내로 笠川財團에 들렀다. 동財團에서는 鶴崎事務局長으로부터 동 財團設立 目的과 理念 및 國際協力關係에 대하여 설명 및 토의가 있었고 동재단이 운영하는 “라이프 푸레닝센터”를 시찰하였는데 진찰, 신체계측, 암검사, X선, 생리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진단 등 모든 과정이 최신장비와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다.

현대 예방의학에서 수검자가 요구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이다. 그것들이 기계와 사람이 잘 “매치” 되어 일사불란하게 처리되는 것을 볼때 미약한 장비로 시작한 우리의 健協事業에 비추어 관심이 가지 않을수 없었다.

동재단의 강당에 들렀을 때 “지구 는 한가족” “인류는 형제”라는 큰영문자가 벽에 붙어 있었으며 오후에는 다시 중앙회에 들러 國井長次郎씨와 동협회 간부 여러분과 함께 韓·日·中 기생충대책에 관한 현황보고와 토의가 있었고 이자리에서 한국의 건강관리사업의 설립경위와 계획 및 실적등을 “부리뎡”하자, 國井씨는 한국이 건협사업을 착수한 것을 치하하고 대만도 뒤이어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며 아쉬워했다. 기생충 대책에서 저개발국가의 이야기가 나오자 한·중도 자국에서 기생충을

박멸한 그 여세를 다른 미개국을 돕는데 협조할 때라고 말했다.

중공의 이야기가 나오자 國井씨는 “정치는 모르지만 아이들을 귀여워하는데는 국경이 없다”고 하였다.

중국·대만·한국을 막론하고 아이들은 모두가 귀엽다고 말하고 기생충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고통에서 덜어주자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國井씨는 기생충이나 예방 의학사업이나 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대응무기의 하나는 정확한 검사이고 또 하나는 홍보(교육)라는 무기인데 예방사업은 이 두개의 支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자와 전문가가 협력하고 위원회를 구성 사업을 펼쳐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협사업을 착수한 우리들로서는 모두가 소중하고 고마운 말들이었다.

다음날 방문한 곳은 國立豫防醫學衛生研究所였다. 이곳 所長인 林滋生씨는 “기생충 퇴치는 아직도 세계적인 난제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일본 한국 대만 등은 기생충 퇴치에서는 우등생이지만 다른 저개발국가에서는 기생충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성에서 볼때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고 말하고 기생충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중의 우등생 국가들이 저 개발국가들에게 기

생충 퇴치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했다.

7월7일은 國立身體障害者 리하비리테숀센터-에 들러 若松榮 - 총장의 소개로 동시설과 훈련과정을 돌아보았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을 당할지 모른다. 이곳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따뜻한 마음과 돌봄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실생활에 적응시키고 재활을 돕는 곳이다.

이 “센터-”내에는 각종 장애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적응하기 좋게 시설이 알맞게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활동하는 신체장애자를 위하여 시내도처에 그들을 위한 보도 부력이나 계단의 손잡이·낮은 화장실 등을 볼 수 있었다.

7월8일에는 田子保健센터 - 와 東京都養育院을 방문했다. 이 두 곳에서 느낀점은 하나는 아이들 문제 하나는 노인문제였다. 유아의 출산 숫자는 산아제한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태어나는 아이들의 질의 향상이 문제임으로 모체의 임신중 건강에서부터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또 년소인구(0~14세)의 감소에 반하여 고령자(65세이상) 인구가 증가해 가는 문제였다.

사실 노인 양육원의 실정은 8,90세의 기동력을 잃은 노인 한 사람을 위해서 건장한 청년이 한 두명씩 붙어

시중을 드는것을 볼때 인간의 생명을 어디까지 연장시켜야 되느냐에 회의를 금치못했다.

생산년령(15~64세)에서 볼 때 고령자의 증가추세는 젊은이들에게 부담의 증가를 말한다. 1975년에는 9인이 고령자 1인을 부담했는데 2,000년대에는 4.3인이 고령자 1인을 부담해야 하고 양부모를 갖인 독자와 외딸이 결혼했을 때는 2사람이 4인의 노인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러한 추세는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상황들이었다.

7월11일에는 神奈川縣豫防醫學協會를 방문했다. 이곳의 이사장은 黒柳治三雄씨였다. 일본의 기생충 및 예방의학사업에 있어 國井長次郎씨가 해외사업을 콘트롤한다면 黒柳씨는 국내사업을 담당하는 일본 기생충 및 예방의학사업의 쌍벽을 이루는 분이였다.

동협회는 400명의 직원에 금년 예산이 "일화" 35억엔이며 진료소와 교육센터 및 집단검진센터 -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검진차량만해도 위검 사용 6대, 흉부용 3대, 부인자궁암용 2대, 순환기용 2대, 작업용 2대 등 약 40여대의 각종 차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화학 자동분석기, 심전도, 자동해석장치, 뇨자동분석기, 스크린테스트컴퓨터시스템 등 모두가 우리가 부러워할 고가의 장비들이였으며 모든 검사자료가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 유지되고 있었으며 유아보건에서부터 학교보건 노인보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예방 의학사업을 맡고 있었다.

7월12일에는 東京都豫防醫學協會를 방문 이나미(稱見一清)씨에 의하여 동협회의 발자취와 한·일·중기생충대책 및 예방의학사업의 전개와 전망등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각부서를 돌아보았는데 가나가와협회와 같이 우수한 검진장비를 갖추고 신속하고 정확한 체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수한 장비를 어떻게 구입했느냐고 하니가 그러한 장비는 競輪(싸이클)競漕(보트·요트 레이스) 등의 단체에서 공중보건을 위해 영리금을 기탁받기도 하고 또는 都와 縣의 지원 그리고 자체의 재원등을 합쳐 일시 또는 년부로 갚아 나간다고 했다.

동협회의 초기와 현재의 대비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회충감염율이 1948년에는 70%가 83년에는 0%로 1949년의 직원수는 51명이 현재로 256명 49년의 예산은 1,065천엔이 금년에는 2,530,000천엔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각종 검진차량의 내부장치 및 구조도를 의뢰했다.

7월13일에는 "히가리"호 열차를 타고 약 3시간 소요로 도쿄에서 오사카로 가서 大阪豫防醫學協會를 방문하여 細川修治 이사장의 인사와 高田상무이사로부터 "국내에 있어서

기생충예방의 경과와 오사카 부내에 있어서의 현상과 대책”이란 주제하의 상세한 토의가 있었고 이어 동협회 주요시설을 돌아보았다. 이곳에서도 지금까지 본 타 협회에서도 같이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7월14일에는 兵庫縣豫防醫學協會를 방문하여 渡辺一九회장의 인사와 大浪사무국장의 개요설명과 伊達 상무이사 輕部부인보건부장 志津기 사장 여러분과 집단검진자궁암, 기생충예방등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협회시설을 돌아보았다.

정오에는 이곳 시가가 내려다 보이는 六甲山에 올라 주식을 같이했다. 오후에는 神戸시립중앙시민병원에 들러 최신의료시설을 갖춘 세계굴지의 현대식병원을 돌아보았다.

7월15~16일은 공식행사에서 벗어나 奈良와 京都에 들러 일본고적지에 들릴 수 있었던 것이 다행한 일이었다. 이상으로 참가기를 마치고 우리의 사업추진에 건주어 몇가지 추가하려 한다.

일본의 예방의학사업의 전환은 1967년부터였다. 그것은 질병구조의 변화 즉 하나는 어린이의 성인병화이고 또 하나는 인구고령화와 성인들의 순환기 질환이며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에 따른 대비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우리가 직면해 가고있는 상황들이다.

기생충은 감소되지만 예방의학에

유모어 극장

●장담

옛날 경기도 이천 고을에 한 갑부가 살았는데, 어느덧 딸 자식을 시집 보내게 되어 장님이며 세상을 정성들여 맞춘 다음,

「평생 쓸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주게」그러자,

「염려말쇼, 제가 만들면 아가씨가 서너번은 시집을 간다해도 끄떡 없으니까요」

●제잘난 맛

어떤 세도깨나 하는 집 아가씨가 잔뜩 모양을 내고 몸종을 데리고 나들이를 나섰다. 짧은 녀석들이 지나가다 돌아보며 「거참 기차게 예쁘기도 하구나!」

이 아가씨는 마음속으로 자못 흐뭇해 하면서 넌지시 몸종더러 「애, 지금 저들이 날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나?」

「아네요, 아가씨! 저보고 그런거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서 다루는 질병현상은 자꾸만 늘어만 간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몇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확고한 신념. 둘째 조직의 정비. 셋째 기술의 세련과 고도화. 넷째 시설과 장비의 보강. 다섯째 홍보활동의 강화 그리고 관계기관(정부, 학자, 의사, 지역유지)과의 부단한 협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선진 예방의학사업국에 결코 뒤지지 않을것을 확신한다.